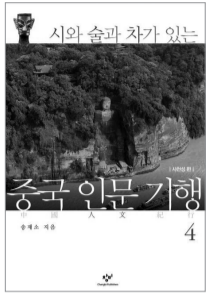


中 답사 1번지 사천성의 역사문화 속으로

시와 술과 차가 있는 중국 인문기행-4

송재소 지음



“...꽃길은 손님 맞아 청소한 적 없는데/ 사립문 그대 위해 처음으로 열렸소.” 시성(詩聖)으로 추앙받는 당나라 시인 두보(712-770)의 ‘손님이 오다’(客至)의 일부다. 두보는 759년부터 765년까지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에 머물며 247수의 시를 지었다. ‘안사의 난’이 한창이던 762년 11월에는 사흘을 찾아 곤경하던 시인 진자양의 흔적을 둘러본 후 ‘야망’(野望)이란 시를 남겼다. “...사홍의 봄술은 추위도 푸르나니/ 맑 상하는 일이 눈앞에 가득한데/ 그 누가 나를 위해 이 술을 권하려나.” 현재 성도 사람들은 음력 1월 7일에 ‘두보 초당’을 찾아 당나라 시인을 기린다. 초당 내에는 사립문(柴門), 꽃과 나무를 심어 가꾼 조그마한 오솔길인 화경(花徑)이 복원돼 있다.



중국 사천성 성도 절벽 바위를 깎아 조성한 세계 최대의 석조 불상 ‘낙산대불’(樂山大佛·높이 71m). 당나라 해동선사가 20년간 모금을 해 713년 공사를 시작한 후 803년 최종 완성까지 90년이 걸렸다. <위키미디어 커먼스 제공>

로 천년고찰 보광사, 자이언트 판다공 번식지, 도교 발상지 청성산, 유비와 제갈량의 사당 무후사, 두보 초당, 세계 최대의 석조불상 낙산대불 등지를 찾아 사천성의 역사문화 속으로 독자들을 이끈다. 우선 청동으로 만든 나무 형상의 ‘청동 신수’(靑銅神樹·높이 3.84m) 유물이 눈길을 끈다. 삼성퇴박물과 최고의 유물로 손꼽히는 유물로, ‘고대 촉인(蜀人)들의 태양 숭배 흔적’이면서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상징물’이다.

사천성은 유비와 제갈량을 비롯해 두보, 설도(당나라 여류시인), 당송팔대가 소순·소식·소철 3부자, 광말약(중국 근현대 최고의 인문학자) 등 많은 인물들의 흔적을 품고 있는 공간이다. 유비와 제갈량의 사당인 무후사를 찾은 저자는 기동편역과 주련에 쓰인 구절과 두보 시를 통해 ‘삼국지’의 군주와 신하 이야기를 풀어낸다. 세 개의 강이 합류되는 지점에 조성된 세계 최대의 석조불상 ‘낙산대불’(높이 71m)과 중국에서 ‘다소마오’(大雄貓)로 불리는 멸종위기의 국보급 동물 자이언트 판다는 사천성의 색다른 면을 보여준다.

송재소 성균관대 한문학과 명예교수(퇴계학연구원 원장)가 펴낸 4번째 ‘시와 술과 차가 있는 중국 인문기행’이다. 이번 인문기행 무대는 중국 사천성이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성(省)인 이곳은 독자들에게 유비의 촉한(蜀漢)을 먼저 떠올리게 한다. 이곳 지형은 비옥한 분지(동부)와 험준한 고원(서부)로 이뤄진 까닭에 수려한 자연경관과 함께 오랜 역사 속에서 독특한 인문적 요소를 형성했다. 저자는 ‘책머리에’를 통해 “사천성은 풍부한 문화유적과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어 나는 감히 사천성을 ‘중국 답사 1번지’라 부르고 싶다. 그만큼 매력적인 곳이다”라고 밝힌다.

저자는 고대 청동기 유물 발굴지인 삼성퇴를 시작

새로 나온 책

▲대한민국 교육, 광장에 서다=사이초 사건 등을 말미암아 교육계의 어두운 현실이 수면 밖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이 처한 학교 안 교육상황은 암담하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한 젊은 교사들의 사례도 이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교육활동 침해 사례도 많을 뿐 아니라, 교권 보호위원회를 요청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례까지 포함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침해 건수는 상당하다. 유치원교사, 특수교사 등 다양한 교사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았다. <학교도서관저널·1만7000원>



▲전쟁과 학살을 넘어=인문사에서 국제뉴스를 다뤘던 저자들이 분장사로 얼룩진 21세기를 분석했다. 전지구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우-러 전쟁을 다루면서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 속 러시아의 존재를 역사적으로 조명한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 빼놓을 수 없다. 피상적인 현상만으로 전쟁의 원인과 끝을 파악하기 어렵기에, 역사를 ‘맥락’을 통해 알려준다. <인물과사상사·1만7500원>

▲개화기의 선각자 서재필=개화사상가, 언론인, 계몽사상가 등 서재필을 소개할 수 있는 말은 많지만 개화시대의 큰 어론자 독립운동가라는 설명을 빼놓을 수 없다. ‘독립신문’이라는 근대적 신문을 펴냈으며 독립운동을 세웠고, 독립협회와 만민공회회를 주도하며 자신의 가족은 몰살당하는 참극을 겪었다. 그럼에도 민족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피란국절을 감내하고 개화기 한국에 큰 족적을 남긴 것. 서재필을 조명하면서 해방 후 행적까지 자세하게 소개한다. <두레·1만9000원>

▲동이 약이다=장내 미생물로 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화기내과 전문의가 알려준다. 대변 이식부터 소화기 질환, 장을 위한 식사법을 언급하면서 상용화된 의학적 개념까지 둘러본다. 미생물 이식(대변이식·FMT)과 소화기 질환 등을 겪는 사례를 살펴보고 소화관에서 발병하는 질환과 치료법 등을 개괄하고, 현대인의 달라진 식습관 등이 야기한 질병 문제를 낱알이 들여다 본다. <히포크라테스·1만7000원>

어린이·청소년 책



▲나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책’은 한 편의 시처럼 ‘나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며 아이를 유혹한다. 그러나 막상 열어본 책의 1페이지는 찢겨 있고, 4페이지에는 개가 잘근잘근 씹어 먹은 흔적이 남아 있다. 책을 받은 아이는 진정 자신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책을 상상한다. 13쪽에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라고 적어 둔다. <풀빛·1만3000원>

▲나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책’은 한 편의 시처럼 ‘나는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며 아이를 유혹한다. 그러나 막상 열어본 책의 1페이지는 찢겨 있고, 4페이지에는 개가 잘근잘근 씹어 먹은 흔적이 남아 있다. 책을 받은 아이는 진정 자신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책을 상상한다. 13쪽에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라고 적어 둔다. <다산어린이·2만2000원>

▲육효진 선생님의 법과 정치 개념 사전=일상 속에 녹아있는 법 기초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낸다. 개헌과 탄핵, 혼동할 수 있는 선거구와 정부, 국회의 역할 등 법과 정치 개념 100가지를 엄선했다 소개한

다. 사회 교과서에 등장하는 동물권, 필리버스터 등 화두가 되는 개념과 시사 이슈까지도 알 수 있다. <단추·1만5000원>

실패하는 법도 손해보는 법도 모르는 똑똑한 세대, 2000년대생

2000년생이 온다

임흥택 지음



‘하면 〇〇’ 당신은 공판에 들어갈 답으로 어떤 게 떠오르는가? 주저 없이 ‘하면 된다!’를 외친다면 당신은 아날로그 인간에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 1982년 생인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흥택은 리더에게 어떤 지시를 받을 때 현실적으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기에, 자신은 ‘하면...될까?’ 정도로 이야기할 것 같다고 말한다.

반면 디지털적 AI 인간인 2000년대생은 ‘되면 한다’라고 말하는데, 임흥택은 ‘하면 된다’가 진취적이고 긍정적이라면, ‘되면 한다’는 방어적이고 이성적인 사고 방식에 가깝다고 설명한다.

40만부 이상 판매된 ‘90년생이 온다’의 저자 임흥택

이 이번에는 ‘2000년생이 온다-조합리, 조개인, 조자율의 탈회사형 AI 인간’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기 시작한 2000년생(496만명)을 해부했다. 이번 책 역시 전자과 마찬가지로 탄탄한 현장 취재를 통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며 이야기를 풀어간다.

‘실패하는 법도, 손해보는 법도 모르는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 이 책을 홍보하는 띠지에 적힌 문구다. 2000년대생들은 ‘마음은 이미 퇴사한 월정액 직장인’이기에, 사장님은 저를 잠시 구독하고 계산 거’라고 말한다. 80, 90년대생이 생존전략으로 회사에 다녀야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반면, 그들의 목표는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잘 그만 두는 것이다. 직장생활을 지속해서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2000년대생의 세대적 특징으로 세 가지를 꼽는다. 먼저 ‘조합리’다. 이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주장보다는 팩트를 따지고, 전통이나 명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실리를 택하며, 손해 보는 일은 피하려는 태도가 익숙해졌다.

두 번째 특징은 ‘조개인’이다. 그들은 사회에서 관계를 기본적으로 대등하게 본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과도 성인 대 성인의 관계로 자신들을 인식한다. 물론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는 구별된다.

마지막 특징은 ‘조자율’이다. 이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는 말로 자신의 존재감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지금의 2000년대생에게 필요한 것은 내 인생과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이다. 그렇기에 초자율적 세대가 선호하는 근무제도는 시간 자율성과 공간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90년대생이 ‘젊은 끈대’가 되지 않으려 애쓰는 상황에서 기성 세대들이 포진해 있는 일반 직장에서 2000대생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는 “2000년대생들과 얼마나 함께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회사가 가장 효율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기도 하지 않 혼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닌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도서출판 11%-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